

광주를 사랑한 ‘영원한 화가’의 열정 만나다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김보현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전

조선대 미대 산파...수많은 제자 길러내
부인 실비아와 작품 400여점 학교 기증

내달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부
70년 작품 변천과정 한눈에
부인 실비아 작품 10여점도 함께 전시

▶ ‘무제’ (1961)



“백살까지 살아서 ‘100세 개인전’을 열고 싶다”

지난 2014년 2월 9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보현(1917~2014) 화백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눈을 감기 전까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캔버스를 마주했던 열정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후배 미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 김 화백은 6·25를 계기로 광주에 정착하며 1946년 9월29일 개설된 조선대 미술대학 산파 역할을 했다. 약 10년 간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지금도 조선대 미술대학 건물 1층 ‘우리 대학을 빛낸 인물’란에 첫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김 화백은 지난 2011년에는 부인 실비아 올드 여사와 함께 작품 400여점을 학교에 기증했고, 조선대 측은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미술대학 본관 1층)을 설립해 상설 전시하고 있다.

조선대미술관(관장 김익모)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이 김 화백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밝힌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3월2일부터 12월29일까지 ‘예술적 삶’을 주제로 기획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과 삶의 동반자이자 동료 예술가인 실비아 올드의 작품을 정리해 선보이는 2인전이다. 초창기 작품부터 2012년 95세에 투병을 마친 직후 제작한 ‘새로운 생 1-4’까지 70년 화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보현 화백과 부인 실비아 올드 여사.

유화를 비롯해 채색 드로잉, 콜라주 등 다양한 양식과 기법이 담긴 작품 40여점을 출품한다.

전시는 화풍에 따른 시기별로 구분해 1부 ‘고통’(3월2일~7월21일)과 2부 ‘환희’(7월21일~12월29일) 등 소주제로 나눠 작품 변천과정을 선보인다.

1부에는 1957년부터 1980년까지의 추상·사실주의 작품(14점)이 중심이다. 과거 기억과 고통, 사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트라우마로 자리잡은 상황을 화폭에 분출하고 주변과 일상을 조용히 관조한 결과물이다.

작품 ‘무제’(1961)는 거친 붓질로 화폭 전체를 검은 물감으로 두껍게 칠한 추상화다. 불안과 공포, 부정적인 이

미지를 형상화시키며 당시 겪었을 심적 고통이 전해진다. 1964년 작 ‘개’, 1974년 작 ‘생선’은 사실적 기법이 눈에 띈다. 색연필로 세밀하게 그린 외곽선, 명암처리, 생동감 있는 구도는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기본을 중시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또한 실비아 올드의 작품 10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실비아는 서양 색채보다는 동양 신비주의에 더 가까운 정신성을 구현한다. 인도·네팔·일본·홍콩 등을 여행한 경험을 녹여낸 작품과 아상블라주(Assemblage·폐품 등으로 만든 미술작품) 기법으로 작업한 설치와 조각, 드로잉을 배치한다.

올해 하반기 펼쳐지는 2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구상 회화가 전시된다. 김 화백은 힘든 미국 이민 시기, 실비아 올드 여사를 만나 몸과 마음의 안정을 이루며 작업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느낀다. 이때부터는 과거에 대한 화해와 용서, 자유, 새로운 시작의 환희 등을 작품에 담는다. ‘새로운 생’(2012) 등 유화 물감, 색테이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익모 관장은 “조선대 미술대학 초대교수를 역임한 김보현 선생님은 혼란스러웠던 6·25시기와 미국 이민 때 겪었던 고통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분이다”며 “이번 전시는 작품을 많이 걸기 보다는 학술적으로 세분화시켜 주제별·경향별로 깊이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230-676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4차 산업혁명시대 잊혀져 가는 가치들

담양 담빛예술창고 내달 29일까지 신년기획전

실험적 현대미술을 선보이고 있는 담양 담빛예술창고가 신년을 맞아 현시대를 되짚는 전시를 연다.

3월29일까지 ‘담빛’ 2017 정유년을 열다!를 주제로 회화·사진·조각·설치·미디어·염직·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데 모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경희, 김인경, 김재성, 나명규, 노은희, 라규채, 박문중, 이이남, 인준교, 한선주, 김영설, 서경석, 정이석 등 작가 13명이 참여해 5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잊혀져 가는 가치를 탐구한다.

인준교 사진작가는 곡성·나주·영광 등 전남 폐교를 찾았다. 작품 ‘지난날 처음 마주친 그때처럼’ 연작은 한때 학생

들로 북적였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남아 있는 이순신상, 이승복 어린이상 등을 포착했다.

박문중 작가가 먹과 흙으로 그린 회화 ‘배’, ‘잔’은 술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한다. 술 한잔으로 고단한 삶을 이겨낸 단상을 형상화시켰다.

도예가 김영설 작가는 현대미술과 만난 공예 본질을 탐구한다. 흙과 불을 재료로 무등산을 담은 ‘분청조화문’ 접시 시리즈에는 도예가로서 지역 고유 특성을 담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한선주 작가는 종이실, 나무, 깃털을 엮어 만든 조형물 ‘condor-1’를 전시한다. 독수리의 일종 ‘콘도르’를 희망의 새로 보고, 삶을 엮는 직녀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 문의 061-383-82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준교 작 ‘지난날 처음 마주친 그때처럼’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 숲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박물관이 숲에서 만나는 인문학 ‘2017 박물관 숲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문화연구소 정숙희, 정영아 강사가 참여해 숲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다. 박물관 인근 숲을 걸으며 진행되는 맞춤형 숲 해설을 비롯해 오감으로 관찰하기, 놀이, 만들기, 전시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3월11일부터 10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4시 박물관 정원

에서 매회 다른 주제로 펼쳐진다. 첫행 문학 ‘2017 박물관 숲 이야기’ 프로그램은 ‘봄맞이 가자. 향기 담으러~’를 주제로, 카나페를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또 ‘사랑을 빚고 마음을 담은 흙’, ‘자연으로 꾸미는 먼 옛날 무늬’, ‘마음을 모으는 낙엽보자기’ 등 시기에 맞는 주제를 기획했다.

참여 희망자는 행사 2주 전부터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에서 선착순(약 40명) 접수받는다. 문의 062-570-70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롯데갤러리 신춘기획 봄맞이 공예전 내달 3~29일

광주 롯데갤러리가 신춘기획으로 3월 3~29일 봄맞이 공예전시회를 연다.

‘살며시 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젊은 공예작가 6명이 참여해 실용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키워드는 ‘생활’이다. 전통 소반과 보자기, 분청사기, 현대적 감성이 돋보이는 예코백, 목공·금속공예 등을 통해 생활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나주소반 전수자 김영민 작가는 전통문

양을 새긴 나주소반과 함께 현대적 이미지 화병과 트레이를 전시한다. 전통 섬유공예가 박유진씨는 분홍과 노랑, 옥색 등 계절색을 물들인 바구니보를 통해 봄의 감성을 전달한다.

봄 이미지를 반영한 자연무늬를 실크스 크린 기법으로 새긴 박혜영 작가는 다양한 문양의 예코백을 선보이며 활짝 핀 꽃과 나비, 열매를 모티브로 주얼리 작품을 제작한 신성장은 ‘Blossom’ 시리즈를 전시한다.

그밖에 전통 분청사기에 세련미를 가미하고 있는 도예가 이지현은 ‘붉은 눈물’, ‘술을 거닐다’ 등 다도구와 생활자기를 작업했다. 나무 원형에서 현대미를 추구하는 한우석 작가도 실용성이 넘치는 수납함, 그릇 등을 출품한다. 한편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한지를 재료로 모빌을 만드는 ‘봄봄! 꽃모빌 만들기’를 진행한다. 문의 062-221-180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유진 작 바구니 보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